

碩士學位請求論文

家庭의 心理的 環境과
兒童의 自我狀態와의 關係



指導教授 許鐵洙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 專攻

吳光勳

1999年 8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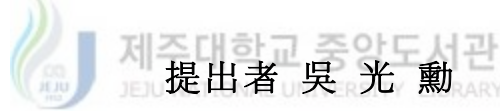
家庭의 心理的 環境과 兒童의 自我狀態와의 關係

指導教授 許 鐵 洙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吳光勳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9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國文抄錄>

家庭의 心理的 環境과
兒童의 自我狀態와의 關係

吳 光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指導教授 許 鐵 洙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자아상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자아상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과 아동의 자아상태와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

가설 I-1~4 :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요인인 성취-비성취,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II-1~5 : 아동의 비판적 부모 자아, 양육적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 순응적 아동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III-1~4 : 아동의 각 자아상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인 성취-비성취,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본 연구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분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심리적인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차이는 ‘성취-비성취’ 요인에서 남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 등의 요인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5개의 자아상태(CP,NP,A,FC,AC)의 모습은 양육적 부모 자아만 남자보다 여자 쪽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4개의 자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상태와의 상관분석에서는 비판적 부모 자아와 양육적 부모 자아,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는 ‘성취-비성취’ 요인과 ‘자율-타율’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애-거부’의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순응적 아동 자아는 ‘개방-폐쇄’, ‘친애-거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에 따른 각각의 자아상태의 모습은, 성취-비성취에서 순응적 아동 자아, 자율-타율에서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 개방-폐쇄에서 비판적 부모 자아와 양육적 부모 자아,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 친애-거부에서는 비판적 부모 자아와 서인 자아가 유의미한 상관이 없으며, 그 외에는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	1
2. 연구의 문제와 가설.....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가정의 심리적 환경.....	5
2. 자아상태의 유형과 특징.....	8
3.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16
III. 연구방법.....	20
1. 조사대상.....	20
2. 측정도구.....	20
3. 자료처리.....	21
IV. 연구결과 및 해석.....	22
V. 요약 및 결론.....	38
1. 요약.....	38
2. 결론.....	40
3. 제언.....	41
<참고문헌>.....	42
<Abstract>.....	45
<부록>.....	47
1. 가전환경 진단검사.....	48
2. 자아상태검사.....	51

< 표 목 차 >

<표Ⅱ-1> 가정의 심리적 환경 모형.....	8
<표Ⅲ-1> 대상자별 구분.....	20
<표Ⅲ-2> 측정도구 및 신뢰도.....	21
<표Ⅳ-1> 성별에 따른 성취-비성취적 요인에서의 지각 차이.....	22
<표Ⅳ-2> 성별에 따른 자율-타율적 요인에서의 지각 차이.....	23
<표Ⅳ-3> 성별에 따른 개방-폐쇄적 요인에서의 지각 차이.....	24
<표Ⅳ-4> 성별에 따른 친애-거부적 요인에서의 지각 차이.....	25
<표Ⅳ-5> 성별에 따른 가정환경의 요인별 지각 차이.....	25
<표Ⅳ-6> 비관적 부모 자아의 성별 차이.....	27
<표Ⅳ-7> 양육적 부모 자아의 성별 차이.....	27
<표Ⅳ-8> 성인 자아의 성별 차이.....	28
<표Ⅳ-9>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의 성별 차이.....	29
<표Ⅳ-10> 순응적 아동 자아의 성별 차이.....	30
<표Ⅳ-11>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	30
<표Ⅳ-12> 성취-비성취적 요인에서의 자아상태.....	32
<표Ⅳ-13> 자율-타율적 요인에서의 자아상태.....	33
<표Ⅳ-14> 개방-폐쇄적 요인에서의 자아상태.....	35
<표Ⅳ-15> 친애-거부적 요인에서의 자아상태.....	36
<표Ⅳ-16>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	37

[그림 목 차]

[그림 II-1] 정상인의 자아도표.....	14
[그림 II-2] 심신증 환자의 자아도표.....	14
[그림 II-3] 억압 우울 반응의 자아도표.....	15
[그림 II-4] 비행아동의 자아도표.....	15
[그림 IV-1] 성별에 따른 심리적 가정환경의 지각 차이.....	26
[그림 IV-2]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	2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계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져감에 따라 일각에서는 가치관의 혼란이라든가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인간의 상호이해와 자기의식이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정원식(1971)은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할 때 먼저 한 개인이 지닌 심리적인 체제와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어내야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의 정서적·심리적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며 특히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보다도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가정환경이기 때문에 가정환경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가족이라는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그곳에서 성장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그 가정의 물리적 조건과 심리적 조건,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직접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많은 사회화 경험을 하게 된다.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격은 물론 가치관이나 성격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신분석학적 연구나 그 외 많은 연구는 인격형성에 있어서 초기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자녀 교육방식 등이 아동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초기 경험은 대부분이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개체가 자아를 형성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 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자아상태로 그 인격을 이루고 이 세 가지 인격은 분리되어 특이한 행동의 원천이 된다(Berne, 1961).

자아상태(ego state)란 Berne(1961)이 교류분석 상담에서 제시하는 성격

구조 이론으로서, 이 성격 이론은 TA 이론가들에 의하면 전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들의 육아방식에 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허용, 금지령 등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반응하는 가운데 그 나름의 결단을 내리게 되고, 이러한 초기 결단은 몇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자아상태 즉, 행동양식으로 형성되고 표출된다.

이렇게 인간은 환경과 경험에 의하여 과거에 결정되고 형성된 자신의 행동양식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새롭게 선택 결정할 수도 있는 자율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양식은 다시 음미해 보아서 그것들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적절한 것으로 변형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우재현, 1990).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행동 양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배경을 이루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육아 또는 교육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가정의 심리적인 환경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 되기는 하였지만 자아상태 또는 교류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은 몇 편 되지 않는다. 그 중 심재향(1974)의 「교류분석 이론의 자아상태 이론에 근거한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분석 연구」, 김홍용(1987)의 「생활자세와 가정환경 변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기춘의(1989)의 「교류분석 이론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김현수(1988)의 「TA프로그램에 관한 이론적 기초 연구」 등에서 교류분석의 이론과 치료법 등이 소개되고, 실제 적용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이해 및 성격개조에 밝은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육아 및 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아동기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의 환경 조건이 크게 작용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아동의 자아상태 모습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서의 하위 요인과 자아상태와는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와 가설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자아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자아상태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하위요인과 자아상태와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1 :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요인인 성취-비성취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I-2 :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요인인 자율-타율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I-3 :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요인인 개방-폐쇄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I-4 :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요인인 친애-거부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II-1 : 아동의 비판적 부모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II-2 : 아동의 양육적 부모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II-3 : 아동의 성인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Ⅱ-4 :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Ⅱ-5 : 순응적 아동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Ⅲ-1 : 아동의 각 자아상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인 성취-비성취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Ⅲ-2 : 아동의 각 자아상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인 자율-타율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Ⅲ-3 : 아동의 각 자아상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인 개방-폐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Ⅲ-4 : 아동의 각 자아상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인 친애-거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대상이 연구자가 거주하는 제주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아동의 전반 또는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또는 성별로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별, 연령별, 학교급별 등에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자아상태는 이고그램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분석되된 내용이다.

넷째, 18세 이전의 인간은 아직 성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의 자아 상태는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 된 자아상태 또한 유동적이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가정의 여러 환경 중에서 심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고찰하고, 자아상태의 유형과 특징 및 자아상태와 심리적 가정환경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인 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가정의 심리적 환경

인간의 발달과정과 환경을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환경은 인간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 영향을 미치는 외적 자극, 힘, 조건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환경을 떠나 생존할 수는 없다.

Bloom(1964)은 환경이란 개인에게 부닥치는 조건, 힘 및 외적통제라 하였으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작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환경은 인간의 특성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해주는 요인이다.

둘째,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인간발달 과정 중에서 가장 급격한 발달을 가져오는 시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인간에게 주어지는 환경 중에서 초기의 환경은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넷째, 환경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개별적인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환경 중에서는 그것이 미치는 강력한 힘 때문에 그 환경에 접하고 있는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변화시키는데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환경이 강력한 환경이다.

다섯째, 환경이 작용하여 일으키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Murray(1983)는 환경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환경적 압력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환경 내에 심리적 힘이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그것

을 압력이라는 개념으로 표시하였고, 이 압력을 다시 구분하여 알파압력(α press)과 베타압력(β press)으로 분류하고 있다. 알파압력은 환경 내에 실재하는 현실적인 심리적 힘을 말하며, 베타압력은 환경 내의 사물을 개인이 지각하고 해석한 압력이다. 따라서 베타압력은 개인의 특이하고 개인적인 현상학적 세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행동이 알파압력보다 베타압력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베타압력이라고 했다. 이렇게 환경을 심리적 힘으로 표시함으로써 환경의 개념은 좀 더 명백해질 수 있다(정원식, 1983).

이와 같이 환경과 개인의 행동발달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환경 즉,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 가정환경 등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환경이 가정환경이다.

‘문제아가 아니라 문제 가정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정원식, 1989). 이 말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인의 문제행동은 바로 그의 가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반영이라는 뜻이다. 이토록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적응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Bloom(1964)은 가정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흥미, 태도, 성격형성의 발달 속도는 개체의 성장 속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다.

둘째, 어떤 성격특성은 다른 특성에 근거하여 발달한다. 즉, 초기의 성격형성이 후기의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셋째, 학습이론적 근거에서 가정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이미 형성된 흥미, 태도, 성격 등의 체제를 개조시키거나 대체시키기보다는 새롭게 학습하는 것이 더 쉽다고 보기 때문에 최초의 학습이 더 중요한 것이다.

가정환경을 심리적인 면과 물리적인 면을 연결하는 연속선으로 개념화할 때 다른 환경과 비교해 보면 명백히 가정환경은 심리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 이유는 가족 구성원은 물리적 성질의 환경이라기 보다는 심리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Bossard(1960)는 가정환경을 주로 심리적 환경에 기초를 두고 가정환경을 가정조직, 가족 구성원의 수, 가정의 심리적 과정, 가정문화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정 조직은 영구적인 관계에 기초를 둔 혈연관계로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소가족제도, 중간가족제도, 대가족제도로 나누고 있다. 가정의 심리적 과정은 가족들끼리의 심리적 상호작용을 뜻하며, 감각적 상호작용, 정서적 상호작용, 지적 상호작용 등이 포함되고 있다. 가정문화는 가정이 사회 집단의 하나로서 어떤 문화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뜻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문화체제에 따라 달라진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개념화한 여러 학자들의 모형이 있다. 그 중에서 Baldwin(1955) 등은 여러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 가족원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를 온화, 익애 대 거부, 민주 대 전제, 경쟁의식, 활동성 등의 다섯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Symonds(1937)는 양친의 양육태도의 기본 요인으로 거부적-수용적, 지배적-복종적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행동과학연구소(1973)에서는 성취동기를 위한 압력, 언어발달을 위한 압력, 정의적 지원 등을 심리적 환경의 내용으로 개념화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의 모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사람의 정서 및 가정 문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원식의 모형을 따르고자 한다.

정원식(1989)은 가정환경을 크게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은 거주지 생태적 환경, 집의 크기, 내부 문화 시설, 경제적 지위, 가족구성원의 변인을 포함한다. 심리적인 환경을 가정의 가치 지향성, 가정의 집단 성격, 가정의 심리적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변인은 다음 <표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의 가치 지향성은 사회 상승주의, 물질 지향주의, 전통주의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가정의 집단 성격은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가족 구성원 간의 태도, 가정의 응집력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가정의 심리적 과정은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표Ⅱ-1> 가정의 심리적 환경 모형

구분	구 조 환 경		과 정 환 경 (심리적 환경 요인)
	가 치 지 향 성	집 단 성 격	
하 위 변 인	사 회 상 승 주 의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협조자 - 지배자)	성취 - 비성취
	물 질 지 향 주 의	가족 상호간의 태도 (긍정적 - 부정적)	자율 - 타율
	전 통 주 의	가정의 응집력 (응결 - 소외)	개방 - 폐쇄 친애 - 거부

이러한 과정 환경의 심리적 변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취-비성취’는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스스로 달성하기를 격려 요구하며, 항상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를 권장하고, 박력과 끈기, 주의력을 집중시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성향을 말한다.

둘째로 ‘자율-타율’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며, 권위나 윗사람의 결정에 모조건 동조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성향을 말한다.

셋째로 ‘개방-폐쇄’는 주위의 사물이나 타인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대하며, 미지의 사태에 과감히 대처해 나가도록 기대하는 성향을 말한다.

넷째로 ‘친애-거부’는 가족의 구성원이 서로 접촉하기를 원하며, 서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협동하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기대하는 성향을 말한다.

2. 자아상태의 유형과 특징

교류분석(TA)에서는 인간을 모두 세 가지의 ‘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자아상태라 하고 있는데, Berne(1964)은 ‘감정 및 사고, 이에 관련된 일련의 행동양식을 종합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명규, 1997, 재인용).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자아상태로 그 인격을 이루고 이 세 개의 인격은 각각 분리되어 특이한 행동의 원천이 된다고 Berne(1961)은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아상태는 Berne의 성격구조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Patterson, 1980).

자아상태는 부모 자아(parent ego: P), 성인 자아(adult ego: A), 아동 자아(child ego: C)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 자아 상태는 그 기능상 비판적 부모 자아(critical parent ego: CP)와 양육적 부모 자아(nurturing parent ego: NP) 상태로 나눌 수 있고, 아동 자아 상태는 자유로운 아동 자아(free child ego: FC), 순응적 아동 자아(adapted child ego: AC) 상태로 나눌 수 있다.

Berne에 의하면 개인은 항상 ‘부모’, ‘성인’, ‘아동’이라고 불리어지는 세 가지 독립된 자아상태 중의 어느 하나로 기능한다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실은 Berne이 사용하는 ‘Ego’는 Freud가 사용한 ‘Ego’와 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현상적인 실체들이라 할 수 있는데, 자아상태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모 자아(P)이다.

부모 자아는 5세 이전에 부모를 포함한 의미 있는 연장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면화 시킨 것이다. 따라서 부모 자아에 의한 행동은 독선적, 비판적, 비현실적, 무조건적, 금지적인 것이 많다. 부모 자아는 기능상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우재현, 1990).

징벌적, 봉건적, 권위적, 비난적, 편견적, 비판적, 배타적인 비판적 부모 자아(CP)는 부모의 윤리, 도덕, 가치판단의 기준이 그대로 내면화된 것이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1인자라는 식이며 명량성이나 유모어감이 없고 주위 사람, 특히 배우자나 자녀를 불안하게 한다(김현수, 1988).

구원적, 보호적, 위안적, 배려적, 동정적인 양육적 부모 자아(NP)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등 자녀를 양육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대로 내면화된 것이다. 자신의 동생이나 후배를 격려하고 북돋워 주는가 하면

부모와 같이 보호하고 불편한 점을 도와주는 등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면이 강하다. 양육적 부모 자아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나 이러한 것이 지나치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김현수,1988).

둘째로 성인 자아(A)이다.

객관적, 합리적, 분석적, 지성적, 논리적, 사실평가적, 정보처리적이어서 일종의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이 성인 자아는 생후 10개월 경부터 자신에 대한 자각과 독창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혼자서도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인 자아에서는 감정과 윤리 도덕적인 면이 거의 배제된다. 성인 자아는 부모 자아에 기록된 자료와 아동 자아에 기록된 감정, 성인 자아가 수집한 자료의 진실성 여부와 현재에도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서 그 자료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성인 자아가 부모 자아의 자료나 아동 자아의 감정을 평가하는 것은 이들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들 자료를 자유롭게 검토하여 부모 자아나 아동 자아에 의한 기능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인 자아가 기능하는 정도에 따라 그 개인의 기능 정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이형득 외,1984).

셋째로 아동 자아(C)이다.

인간 내에서 생득적으로 자연히 일어나는 모든 충동과 감정, 그리고 5세 이전에 실제로 경험하고 행동한다든지, 또는 그것과 비슷한 행동,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그에 대한 반응 양식이 내면화된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적응을 위한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욕구좌절과 같은 많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가 하면 시행착오 중 성공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등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어휘나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은 언어로 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 자아는 기능적인 면에서 자유로운 아동 자아(FC), 순응적 아동 자아(AC), 자

연스런 어린이 자아(NC), 작은 교수 자아(LP)로 나누고 있으나, 국제교류 분석협회(ITAA)의 통일 원칙에 따라 NC와 LP를 포함해서 FC로 사용한다.

본능적, 적극적, 창조적, 직관적, 감정적, 자발적, 행동적, 탐구적이며,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자유로운 아동 자아(FC)는 부모나 성인들의 반응에 구애됨이 없이 내면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그대로 언어나 비언어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을 나타낸다(이성태,1991).

따라서 윤리나 도덕에 별로 구애되지 않으며, 즐거움을 구하고 불쾌한 것을 피하려고 한다. 지나치면 경솔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김현수,1988).

순응적, 소극적, 의존적, 반항적, 감정억제적이며, 남에게 잘 보이려는 순응적 아동 자아(AC)는 기능 하는 중에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죄의식, 두려움, 부끄러움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순응적 아동 자아(compliant child ego)와 때에 따라서는 타인에 대해 화를 내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반항적 아동 자아(rebellious child ego)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성태,1991).

이상에서 자아상태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 보았는데, 이것은 기능별로 도표화하여 성격 진단을 하게 된다.

사람은 과거의 친자관계,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행동양식이 생겨난다. 이 행동양식을 국제교류분석협회의 규정에 따라 5개의 상태로 분류하고, 그것들의 발생 빈도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개인 성격의 조감도를 자아도표라 한다. 이 자아도표는 어떠한 형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도표는 개개인의 개성을 나타낸 것이므로 어떤 형이 훌륭하고 어떤 형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아도표를 읽는 방법 중의 하나가 높은 자아상태와 낮은 자아상태에 주목하여 읽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Dusay(1977)가 소개한 증상별 예를 바탕으로 하여 각 상위 타입과 하위 타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로 비판적 부모 자아(CP) 우위 타입을 살펴보면, 책임감이 강하고 의리가 강한 사람으로 약한 자나 곤란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 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타인 부정의 자세로 권위적, 지배적인 면이 있다.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놀기에 열중하는 사람에게는 저항감을 갖기 쉬운 사람이다. 이상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완고한 모습도 있다. 완전을 요구하며 결국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타인의 노여움을 사기 쉽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낮은 CP를 보이는 사람은 우호적이다. 타인이나 사회를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

둘째로 양육적 부모 자아(NP) 우위 타입은, 타인을 인정하고, 강제를 피하고, 충분한 배려를 가지고 접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자타긍정의 자세를 가진다.

친절하고 잘 보살펴 주며, 또한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 때는 설득력 있게 부드럽게 말한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상대방 중심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즉 ‘마음은 부드러우나 의지가 확고한’사람이다. 상대와 대화가 성사되고, 협력을 촉구하는 데도 능숙하다.

낮은 NP를 보이는 사람은 폐쇄적이고 애정이 부족한 사람이다. 타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동정심이 부족하다.

셋째로 성인 자아(A) 우위 타입을 살펴보면, 이 타입의 사람은 정서보다 지성이 우수한 합리성, 능률성, 생산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된 자세를 보이고, 타인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는 없다. 다각적인 면을 관찰하고 평등, 공정하게 평가하는 태도로 신망을 얻고 있다.

대인관계는 중립적으로 ‘give and take’ 정신으로 살아간다. 서구적인 인간상으로 보통의 한국인에게는 냉정한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낮은 A는 비합리성을 의미한다.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현실의식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의외로 감정적일지도 모른

다.

넷째로 자유로운 아동 자아(FC) 우위 타입은,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때문에 행동이 앞서게 된다. 놀이, 예능, 예술 등의 영역에 잘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본적 생활자세는 자기긍정적으로 자신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밝고 즐거운 면을 기지고 있다. 그러나 낮은 비판적 부모 자아(CP)를 함께 나타낸다면 자기애적인 면도 강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고도 주위 사람에게 어리광을 피워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한편 구김살 없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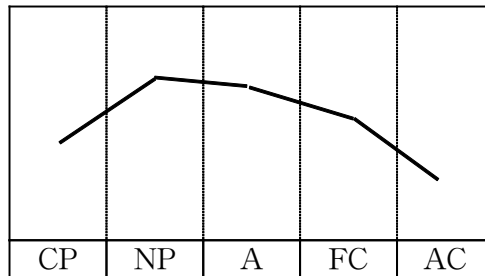
낮은 FC를 보이는 사람은 애정을 억제하고 사물을 즐기지 않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향락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섯째, 순응적 아동 자아(AC) 우위 타입은, 타인 의존형으로 '자기가 없는' 사람으로 언제나 상대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 생활자세는 자기 부정형으로 자기 비하적이거나 사양하는 말이 많다. 때로는 이런 생활 방식에 불만이 있어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반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도 타인 의존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대인관계에서는 착 달라 붙어서 붙들고 늘어지는 면이 있다. 버림 받을까 불안해 하며, 항상 상대의 애정과 관심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다. 자립을 촉구하여도 좀처럼 응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비호 아래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

낮은 AC의 사람은 비협조적이다. 완고하여 융통성이 통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유혹되지 않는 점이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아상태의 우위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의 자아도표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아도표란 각자의 개성이나 특성을 파악한 것으로서 이상적인 형이 있느냐의 문제는 아직껏 분명한 해답이 없다(김현수 역, 1988). 그렇지만 특색 있는 몇 가지의 형들을 찾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네 가지의 형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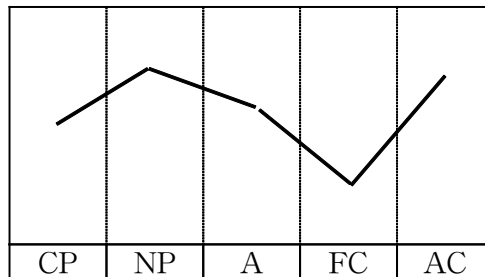
첫째, 정상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아도표의 형이다.



[그림 II-1] 정상인의 자아도표

[그림 II-1]과 같은 형은, 적응이 좋고 자신도 건전하다고 느끼는 형이다. NP 또는 A를 정점으로 내려가는 산모양으로서, CP와 AC가 낮은 것이 특징인데, 타인과의 따뜻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쉽고, FC도 어느 정도 높음으로서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고 인간관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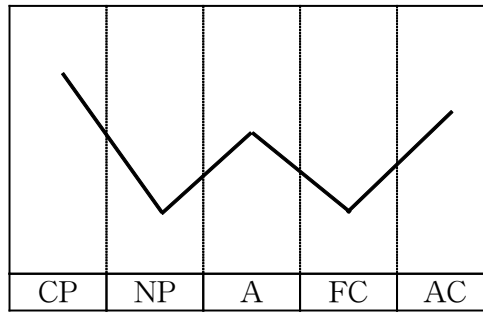
둘째, 심신증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자아도표이다.



[그림 II-2] 심신증 환자의 자아도표

[그림 II-2]의 형은 심신증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모양(이 분야에도 여러 타입이 있음)으로 정상인에 비해서 FC가 낮고, AC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심신증의 성격특성이라고 하는 과잉 적응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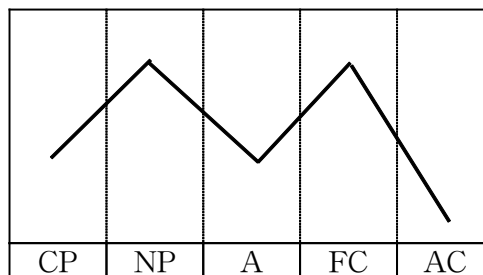
셋째, 억압 우울 반응이다.



[그림 II-3] 억압 우울 반응의 자아도표

[그림 II-3]과 같은 형은 억압 우울상태가 되기 쉬운 사람이다. CP가 매우 높다는 것은 비판이나 비난의 감정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AC도 높으므로 이들을 밖으로 표출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공격 감정은 안으로 향하여 자기 혐오나 자기 처벌의 형태로 처리된다. FC와 NP가 함께 낮다는 것은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처박혀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형은 주로 어렸을 때의 가정환경이 폐쇄적이거나 거부적인 환경에서 형성되기가 쉽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에 충분히 부모에게 응석부리고 싶은 것을 못한 데에서 적극적으로 타인과 관계지어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낮은 NP, 또 높은 AC도 타인 중심의 이른바 ‘자기가 없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 인간 관계에서 이별이나 실의를 체험하게 되면, 그 때까지의 균형이 깨져서 상실에서 오는 격렬한 노여움이 속으로 향하여 의기소침해 가는 것이다.

넷째, 비행아동의 자아도표이다.



[그림 II-4] 비행아동의 자아도표

[그림Ⅱ-4]는 비행청소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으로 AC가 상당히 낮은 데에다 A도 극단적으로 낮다는 것은 완고하고 무계획성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순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C가 높다는 것은 행동 우선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FC와 동시에 NP도 높은 점은 극히 인간적이어서 친구들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 CP가 낮음으로 해서 선악 판단이 미발달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행으로 이어지기 쉽다.

3.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언동에 관계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취사선택하기가 곤란한 유아기에는 그 주위에서 육아를 맡은 사람들, 즉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언동 여하가 유아의 ‘마음’의 형성에 깊이 관계되어 있다(우재현,1997).

유아기의 뇌세포는 ‘새하얀, 아직 한 점도 오염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Berne(1961)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사람은 누구나 왕자·공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이다’라고 하고 있다. 또 미국의 저명한 TA 제창자인 존지워드와 제임스 두 여사도 인간을 ‘정신적 승리자로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그 부모가 빼앗아버려 ‘왕자나 공주를 다만 개구리로 만들고 만다’는 것이다(우재현,1997).

생후 3,4년에 걸쳐서 무분별하게 모으고 비축한 지식이나 체험은 이렇게 하여 특별한 것이 되면 일생 소거되지 않고 그 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사람의 대뇌에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아동 자아’로서 형성된 ‘기본적 정보원’을 TA에서는 ‘인생각본’이라든가 ‘심리각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그에 따른 역할을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근거로 되는 것은 ‘과거에 알고 있던 정보’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유아기를 지난 후의 일은 물론이고, 그 이전

의 지식이나 체험을 원천으로 하여 추측하고 행동의 실마리로 삼기 때문이다. 이 같이 과거에 배운 것은 ‘강화되기는 할지언정 수정되는 것은 드물다’는 것으로 되어 그 사람 나름의 성격이나 인격을 형성해 가게 된다.

육아에 임하는 사람들의 인격형성 상의 책임은 학교교육 이상으로 기본이 되는 내용이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깊은 인식을 가지고 지도에 임하는 자세가 긴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가정환경과 성격형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하였느냐의 문제이다. 가정생활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과 성격형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기술하였으며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가정에서의 양육 방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엄격성과 허용성, 심리적 적응상태, 부모의 애정 등이 관심이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심리적 요인이 성격형성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정원식, 1989).

첫째, 의존성을 조장하여 주는 환경과 성취적이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환경이다. 의존성을 조장하여 주는 환경이란 부모에 대한 의존, 기대 등을 강화해 줌으로써 암암리에 의존성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하며, 성취적이고 독립성을 조장해 주는 환경이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강조하며, 독립적인 행동을 강화해 주는 환경을 말한다. 이 두 가지의 환경에서 비교해 봤을 때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의존성을 조장하는 환경보다는 성취적이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바람직한 성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로서는 Sears(196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둘째로 수용과 거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거부란 아동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이른바 폐쇄적 환경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동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받아들이지 않고 고정관념 속에 묶어 두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격형성에 중대한 결함을 가져온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함의하고 있다.

반대로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에서는 따뜻하고 인간적이며, 사회적으

로 원만한 관계성이 형성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셋째로 부모의 친애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특히 부모의 애정의 정도가 성격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다른 어떠한 양육방법상의 문제보다도 성격형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결론을 보면 애정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것은 반 사회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수반하는 성격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심리학자의 연구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자들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는 성격상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고 성격상의 문제는 어렸을 때 부모와 아동간의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 중에서도 애정의 결핍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로 가정의 분위기가 성격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자율을 존중하는 민주적 분위기와 타율적이고 억압적인 전제적 분위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왔다. 자율을 강조하는 민주적 분위기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이나 혹은 제한점을 어린이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일방적으로 억압하지 않고 성인세계에 대한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분위기를 말한다. 이에 반해서 전제적 분위기란 가정 내의 규칙이나 어떤 제한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지시하며 명령하는 것만으로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타율적 분위기이다. 이와 같은 가정의 분위기가 성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Baldwin(1955)은 중요한 실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교우관계에서 높은 사교성을 나타내고, 다른 아동들과의 놀이에 있어서 친절하며, 타인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적인 감정을 용이하게 표현하며, 타인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태도가 현저하고 또 자신을 남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태도도 현저하다는 것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반대로 전제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동은 소극적이며 위축이 잘 되고, 사회성에서 결함을 초래한다.

TA에서 말하는 자아상태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면, 자아상태들은 일관

성 있고 예언 가능한 순서로 발달한다. 즉, 부모 자아(P) - 성인 자아(A) - 아동 자아(C) 중 가장 먼저 발달되는 자아상태는 아동자아로서, 이 아동 자아는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자신이 긴급한 쾌·불쾌를 중심으로 지각운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만족하고 유쾌한 경험에 감각적 반응을 보이면서 발달한다. 그 다음에 아동 자아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의 경험에 근거하여, 즉 부모의 행동과 습관을 모방함으로써 부모 자아를 발달시키고 마지막에는 아동 자아와 부모 자아의 단계를 거쳐 판단과 조정력을 발휘하고 자기 세계의 의미를 탐색하는 성인 자아가 발달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부모 자아는 5세 이전에 부모의 언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면화 시킨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아동이 어린 시절에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모방하고 학습하면서 그 내용이 아동의 마음 속에 기록되어진 학습된 생활개념이다.

성인 자아는 생후 10개월경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독창적 사고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감을 갖게 되면서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아동 자아는 어린 시절의 감정적 반응의 흔적을 저장해 놓은 곳이다. 즉, 인간내에서 생득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충동과 감정, 그리고 출생 후 5세경까지의 외적 사태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그에 대한 반응 양식이 내면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생활에 대한 감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고명규,1997,재인용).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격형성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가정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알수 있다.

역시 TA에서도 주장하고 있듯이 Berne(1964)에 의하면 자아상태 역시 인생 초기의 학습과정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행동양식을 배우게 된다고 하고 있어 가정환경, 특히 가정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자아상태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 400여부를 투입하였으나 그 중 불성실 응답자 80부를 제외한 320부를 분석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Ⅲ - 1>과 같다.

<표Ⅲ - 1> 대상자별 구분

구분	성별		지역별		학년별		계
	남	여	제주시	기타지역	5학년	6학년	
응답자수	170	150	168	152	154	166	320

대상자 선정은 연구자가 성별, 지역별, 학년별로 임의 표집하였으며, 조사 실시는 학급 담임 선생님의 의해 작성 요령을 주의 깊게 전달한 후 아동이 지각한 가정환경에 대한 48개 문항 및 자아상태 50개 문항에 대해서 조사 수합토록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정원식(1970)의 ‘가정환경진단검사’와 이성태(1997)의 ‘이코그램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표Ⅲ-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리적 가정환경의 하위요인 즉 성취-비성취에서 12문항, 자율-타율에서 12문항, 개방-폐쇄에서 12문항, 친애-거부에서 12문항,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아상태는 비판적 부모 자아 10문항, 양육적 부모 자아 10문항, 성인 자아 10문항,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 10문항, 순응적 아동 자아 10문항,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신뢰도계수가 모두 .07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 방법은 ‘매우 그렇다’에 3점, ‘그렇다(보통이다)’에 2점,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였고, 반대의 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III-2> 측정도구 및 신뢰도

구 분	하 위 요 인	문항수	문 항 번 호	신뢰도(α)
가정환경	성취-비성취적	12	1, 5, 89, 13, 17, 21, 25, 29, 33, 37, 41, 45	.72
	자율-타율적	12	2, 6, 10, 15, 18, 22, 26, 26, 31, 32, 40, 44, 48	.71
	개방-폐쇄적	12	3, 7, 14, 16, 24, 30, 34, 35, 38, 39, 42, 46	.70
	친애-거부적	12	4, 8, 11, 12, 19, 20, 23, 27, 28, 36, 43, 47	.81
자아상태	비판적 부모 자아	10	1, 2, 3, 4, 5, 6, 7, 8, 9, 10	.81
	양육적 부모 자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74
	성인 자아	1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82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	1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76
	순응적 아동 자아	1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75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결과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기법으로는 성별에 따른 가정환경과 자아상태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t-tes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정환경이 자아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유의도는 $p < .05$, $p < .01$, 두 가지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가정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상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자아상태와는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가설 I-1 : ‘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요인인 성취-비성취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에 대한 결과

성별에 따라 가정환경의 성취적 혹은 비성취적인 요인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 성별에 따른 성취-비성취적 요인에서의 지각 차이

환경요인	성별	N	\bar{x}	SD	t
성취-비성취	남	170	20.5	.35	2.95**
	여	150	19.4	.29	
전 체		320	20.0	.33	

** p<.01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이 남자 20.5, 여자 19.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남학생은 가정환경이 성취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여학생은 가정환경이 덜 성취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며($t=2.95^{**}$, $p<.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가정의 성취적인 환경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당초 가설

에 반하는 결과로,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는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성취에 대한 기대 또는 압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결과로 분석되어지며, ‘가설 I-1’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2. 가설 I-2 : ‘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요인인 자율-타율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에 대한 결과

성별에 따라 가정환경의 자율-타율 요인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2> 성별에 따른 자율-타율적 요인에서의 지각 차이

환경요인	성별	N	\bar{x}	SD	t
자율-타율적	남	170	21.7	.33	-1.72
	여	150	22.2	.32	
전 체		320	21.9	.32	

위의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이 남자 21.7, 여자 22.2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여학생 쪽에서 가정환경이 더 자율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가정환경의 자율성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아나 여아에 대한 성차별이 없어져 가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분석된다.

3. 가설 I-3 : ‘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요인인 개방-폐쇄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에 대한 결과

성별에 따라 가정환경의 개방-폐쇄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3> 성별에 따른 개방-폐쇄적 요인에서의 지각 차이

환경요인	성별	N	\bar{x}	SD	t
개방-폐쇄	남	170	20.1	.25	-1.39
	여	150	20.4	.23	
전 체		320	20.2	.24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이 남자 20.1, 여자 20.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여학생의 가정환경이 좀더 개방적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남학생은 폐쇄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가정환경의 개방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역시 남이나 여아에 대한 성차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가설 I-4 : ‘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요인인 친애-거부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에 대한 결과

성별에 따라 가정환경의 친애-거부 요인에서 느끼는 지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IV-4>에서 보는 것처럼, 평균이 남자 22.0, 여자 22.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여학생의 가정환경이 더 친애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가정환경의 친애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 성별에 따른 친애-거부적 환경 요인에서의 지각 차이

환경요인	성별	N	\bar{x}	SD	t
친애-거부	남	170	22.0	.26	-1.67
	여	150	22.4	.26	
전 체		320	22.2	.26	

5. '가설 I-1'에서부터 'I-4'까지의 전체적 경향

<표IV-1>에서부터 <표IV-4>까지를 하나의 표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IV-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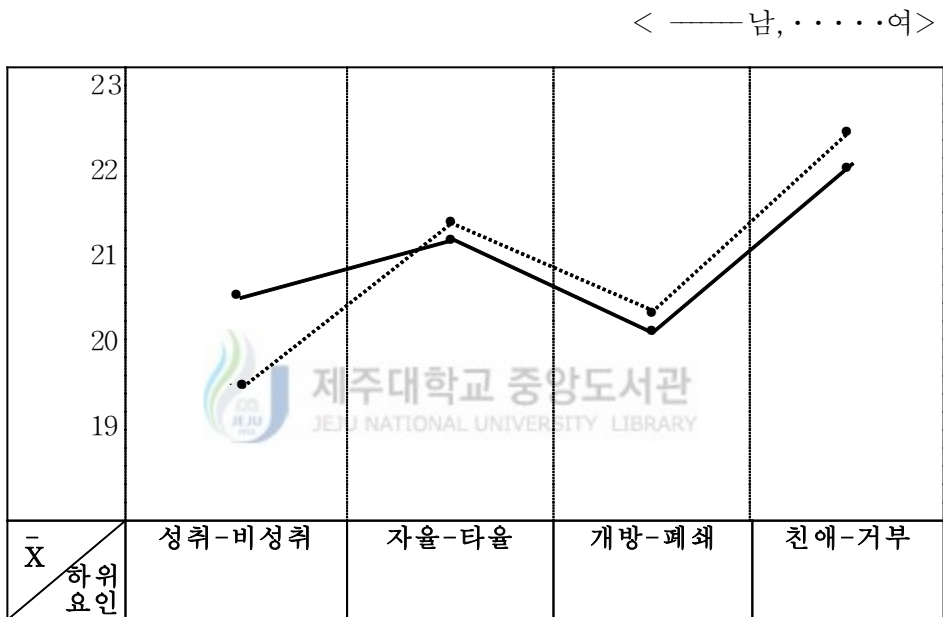
<표 IV-5> 성별에 따른 가정환경의 요인별 지각 차이

환경요인	성별	N	\bar{x}	SD	t
성취-비성취	남	170	20.5	.35	2.95**
	여	150	19.4	.29	
자율-타율적	남	170	21.7	.33	-1.72
	여	150	22.2	.32	
개방-폐쇄	남	170	20.1	.25	-1.39
	여	150	20.4	.23	
친애-거부	남	170	22.0	.26	-1.67
	여	150	22.4	.26	

** p<.01

성별에 따른 가정환경의 지각 차이는 위 <표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취-비성취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의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 요인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최근 소수 자녀의 핵가족을 이루면서 남녀 구별없이 키워보겠다는 가정환경의 변화를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여아보다도 남아에게서 더 성취적 기대를 가지고 있음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다시 도표화하면 다음 [그림Ⅳ-1]과 같다.



[그림Ⅳ-1] 성별에 따른 심리적 가정환경의 지각 차이

[그림Ⅳ-1]에 나타난 모양은 성별에 별 차이 없이 자율과 친애 쪽에서 지각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아가 성취 쪽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가설 I-1’의 경우에만 지지를 받지 못했다.

6. 가설 Ⅱ-1 : ‘아동의 비판적 부모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에 대한 결과

징벌적, 봉건적, 권위적, 비난적, 편견적, 비판적, 배타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비판적 부모 자아(CP)에 대해서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6>와 같다.

<표 IV-6> 비판적 부모 자아의 성별 차이

자아상태	성별	N	\bar{x}	SD	t
비판적 부모 자아	남	170	20.5	.38	.57
	여	150	20.3	.28	
전 체		320	20.4	.34	

<표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이 남자 20.5, 여자 20.3로 남자가 비판적 자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7. 가설 II-2 : ‘아동의 양육적 부모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에 대한 결과

구원적, 보호적, 위안적, 배려적, 동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양육적 자아상태(NP)에 대해 성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7> 양육적 부모 자아의 성별 차이


자아상태	성별	N	\bar{x}	SD	t
양육적 부모 자아	남	170	21.9	.34	-1.97*
	여	150	22.5	.34	
전 체		320	22.2	.34	

* p<.05

앞의 <표 IV-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이 남자 21.9, 여자 22.5로 여학생이 더 양육적 자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1.97^*$, $p<.05$). 따라서, 타인을 인정하고, 강제를 피하고, 충분한 배려를 가지고 접하는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자타 긍정의 자세에 있어서는 여아 쪽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초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8. 가설 II-3 : ‘ 아동의 성인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에 대한 결과

객관적, 합리적, 분석적, 지성적, 논리적, 사실평가지적, 정보처리적이어서 일종의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성인 자아(A)에 대해 성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8> 성인 자아의 성별 차이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아상태	성별	N	\bar{x}	SD	t
성인 자아	남	170	22.1	.34	-.15
	여	150	22.1	.33	
전 체		320	22.1	.33	

위의 <표 IV-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이 남자 22.1, 여자 22.1로 성인 자아상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서보다 지성이 우선하는 경향 정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9. 가설 II-4 : ‘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에 대한 결과

본능적, 적극적, 창조적, 직관적, 감정적, 자발적, 행동적, 탐구적이며,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상태(FC)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9>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의 성별 차이

자아상태	성별	N	\bar{x}	SD	t
자유스런 아동 자아	남	170	22.1	.32	1.51
	여	150	21.5	.39	
전 체		320	21.8	.35	

<표 IV-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이 남자 22.1, 여자 21.5로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는 여학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능적이며 감정적인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0. 가설 II-5 : ‘순응적 아동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에 대한 결과

순응적, 소극적, 의존적, 반항적, 감정 억제적이며, 남에게 잘 보이려는 순응적 아동 자아(AC)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10>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 평균이 남자 19.2, 여자 19.1로 남·녀간에 순응적 아동 자아상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타인 의존형이며 소극적이고, 자기가 없는 사람으로 언제나 상대의 기대에 맞추려 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0> 순응적 아동 자아의 성별 차이

자아상태	성별	N	\bar{x}	SD	t
순응적 아동 자아	남	170	19.2	.32	.33
	여	150	19.1	.40	
전 체		320	19.2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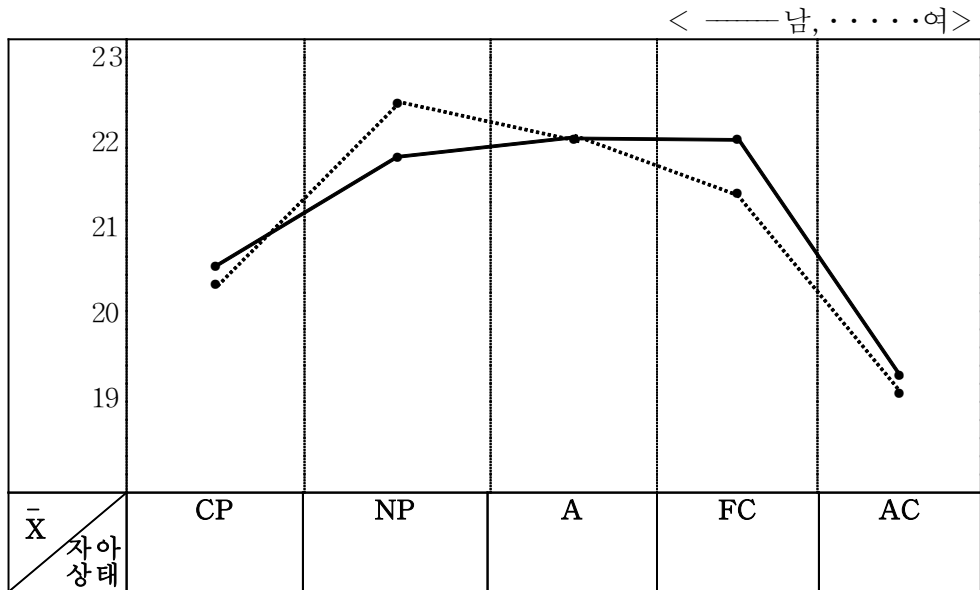
11. ‘가설 II-1’에서부터 II-5’까지에 대한 전체적 경향

<표IV-6>에서부터 <표IV-10>까지를 종합한 각 자아상태의 전체 모습은 다음의 <표-11>과 같다.

<표 IV-11>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

자아상태	성별	N	\bar{x}	SD	t
비관적 부모 자아	남	170	20.5	.38	.57
	여	150	20.3	.28	
양육적 부모 자아	남	170	21.9	.34	-1.97*
	여	150	22.5	.34	
성인 자아	남	170	22.1	.34	-.15
	여	150	22.1	.33	
자유스런 아동 자아	남	170	22.1	.32	1.51
	여	150	21.5	.39	
순응적 아동 자아	남	170	19.2	.32	.33
	여	150	19.1	.40	

<표IV-11>과 같이 자아상태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조사된 결과는 양육적 부모 자아에서만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남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양육적 부모 자아에서는 당초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것을 다시 도표화하면 다음 [그림IV-2]와 같다.



[그림 IV-2]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

이코그램은 어떠한 형이 훌륭하고 어떤 형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Dusay(1977)가 소개한 증상별 예를 바탕으로 해석해 보면, [그림 IV-2]에 나타난 이코그램의 전체적 모습으로 볼 때, 역 U형으로서 적응이 좋고 자신도 건전하다고 느끼는 형과 유사한 모습이다. 즉, NP 를 정점으로 하는 산모양으로서 따뜻하고 명랑하며, 남에게 호감을 받는 타입이나, 어딘지 모르게 미답지 않고 세심한 주의가 부족해서 느슨함과 제멋대로인 타입의 모습임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동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나, 이러한 형에서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점은 보다 합리성, 능율성, 생산성을 우선하는 A를 키워줄 필요를 느끼게 하고 있다.

12. 가설 III-1 : ‘ 아동의 각 자아상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인 성취-비성취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에 대한 결과

가정환경의 성취적 또는 비성취적 요인에서 살펴 본 자아상태의 결과는 <표 IV-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2> 성취-비성취적 요인에서의 자아상태

자아상태	환경 요인	N	\bar{x}	SD	t
비판적 부모 자아	비성취	161	18.6	.34	-4.43**
	성취	159	20.2	.32	
양육적 부모 자아	비성취	161	21.5	.34	-2.46*
	성취	159	22.4	.32	
성인 자아	비성취	161	21.6	.33	-2.67**
	성취	159	22.6	.33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	비성취	161	21.2	.36	-2.96**
	성취	159	22.3	.35	
순응적 아동 자아	비성취	161	18.9	.37	-1.00
	성취	159	19.3	.35	

**p<.01, *p<.05

<표 IV-12>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비판적 부모 자아에 있어서는 비성취적인 가정환경의 학생보다 성취적인 가정환경의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t=-4.43^{**}$, $p<.01$).

양육적 부모 자아 역시 비성취적인 환경보다 성취적 환경의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t=-2.46^{*}$, $p<.05$).

성인 자아도 비성취적인 환경보다 성취적 환경의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t=-2.67^{**}$, $p<.01$).

또한,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도 비성취적인 환경보다 성취적 환경의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고($t=-2.96^{**}$, $p<.01$),

순응적 어린이 자아에서는 비성취적인 환경보다 성취적 환경의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환경이 성취적이거나 비성취적이거나에 따라 아동들의 자아상태는 순응적 아동 자아만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13. 가설 III-2 : ‘ 아동의 각 자아상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인 타율-자율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에 대한 결과

가정환경의 자율-타율 요인에 따른 자아상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3> 자율-타율적 요인에서의 자아상태

자아상태	환경요인	N	\bar{x}	SD	t
비판적 부모 자아	타율적	161	20.7	.34	1.15
	자율적	159	20.2	.34	
양육적 부모 자아	타율적	161	21.8	.36	-1.00
	자율적	159	22.2	.31	
성인 자아	타율적	161	22.0	.31	-.72
	성 취	159	22.2	.36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	타율적	161	20.1	.33	-2.67*
	자율적	159	22.1	.35	
순응적 아동 자아	타율적	161	19.5	.36	1.79
	자율적	159	18.8	.35	

*p<.05

<표 IV-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비판적 부모 자아에 있어서는 자율적 가정환경의 학생보다 타율적 환경의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았고, 양육적 부모 자아는

타율적 환경보다 자율적 환경의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다.

성인 자아 역시 타율적 환경보다 자율적 환경의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다.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는 타율적 환경에서보다 자율적 환경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t=-2.67^*$, $P<.05$).

순응적 아동 자아는 자율적 가정환경의 학생보다 타율적 환경의 학생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환경이 자율적인 환경이나 타율적인 환경이나에 따라서 학생들의 자아상태는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만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그 외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가설 III-3 : ‘아동의 각 자아상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인 개방-폐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에 대한 결과

가정환경의 개방-폐쇄 요인에 따라 자아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4>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우선 비판적 부모 자아는 폐쇄적 환경의 학생이 개방적 환경의 학생보다 좀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양육적 부모 자아 역시 개방적 환경의 학생이 폐쇄적 환경의 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다.

성인 자아는 폐쇄적 환경의 학생보다 개방적 환경의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고($t=-2.33^*$, $p<.05$),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는 개방적 환경의 학생이 폐쇄적 환경의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순응적 어린이 자아는 폐쇄적 환경의 학생이 개방적 환경의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t=-2.66^{**}$, $P<.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환경이 개방적 학생이 폐쇄적 환경의 학생보다 순응적 자아가 낮게 바람직한 쪽으로 나타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방적 환경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표 IV-14> 개방-폐쇄적 요인에서의 자아상태

자아상태	환경요인	N	\bar{x}	SD	t
비판적 부모 자아	폐쇄적	153	20.5	.35	-.50
	개방적	167	20.3	.32	
양육적 부모 자아	폐쇄적	153	21.5	.30	-.63
	개방적	167	21.8	.36	
성인 자아	폐쇄적	153	21.6	.32	-2.33*
	개방적	167	22.5	.35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	폐쇄적	153	21.6	.37	-1.04
	개방적	167	22.0	.34	
순응적 아동 자아	폐쇄적	153	19.3	.38	-2.66**
	개방적	167	18.0	.34	

** $p<.01$, * $p<.05$

15. 가설 III-4 : ‘ 아동의 각 자아상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인 친애-거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에 대한 결과

가정환경의 친애-거부 요인에 따라 자아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5>에 나타난 바를 살펴 보면, 비판적 부모 자아는 친애적 환경의 학생보다 거부적 가정환경의 학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

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양육적 부모 자아는 거부적 환경보다 친애적 환경의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t=2.52^*, p<.05$)

성인 자아는 거부적 환경보다 친애적 환경의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다.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는 친애적 환경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t=2.32^*, P<.05$)

순응적 아동 자아는 친애적인 환경에서보다 거부적 환경의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t=2.54^*, p<.01$).

<표 IV-15> 친애-거부적 요인에서의 자아상태

자아상태	환경요인	N	\bar{x}	SD	t
비판적 부모 자아	거부적	152	20.7	.36	1.32
	친애적	168	20.2	.32	
양육적 부모 자아	거부적	152	20.5	.37	2.52*
	친애적	168	21.5	.30	
성인 자아	거부적	152	21.8	.35	1.42
	친애적	168	22.4	.31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	거부적	152	21.3	.40	2.32*
	친애적	168	22.3	.30	
순응적 아동 자아	거부적	152	19.7	.34	2.54*
	친애적	168	17.5	.46	

* $p<.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환경이 친애적인 학생이 거부적 환경의 학생보다 자아상태가 더 바람직한 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환경이 친애적이냐 혹은 거부적이냐에 따라 학생들의 자아상태는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친애적 가정환경이 교육적임을 말해 주고 있다.

11. ‘가설 III-1’에서부터 III-4’까지에 대한 전체적 경향

앞에서 심리적 환경의 각 하위 요인에 따른 각각의 자아상태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상태와의 정적 상관 또는 부적 상관관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6>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상태와의 상관 관계

구 분	비판적 자아	양육적 자아	어른 자아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	순응적 어린이 자아
성취-비성취	.2985**	.2100**	.1637**	.2635**	.0765
자율-타율	-.0362	.0807	.0264	.1591*	-.0317
개방-폐쇄	-.0142	.0864	.1776**	.1205	-.1408**
친애-거부	-.1576*	-.1992**	-.1155	-.1635**	-.1727**

<표 IV-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판적 부모 자아와 양육적 부모 자아,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는 성취-비성취의 환경 요인과 자율-타율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애-거부의 환경 요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자아는 성취-비성취의 환경 요인과 개방-폐쇄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순응적 아동 자아는 개방-폐쇄의 환경 요인에서 그리고 친애-거부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에 따라 특정의 자아 상태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양육 또는 교육적인 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자아상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의 심리적 환경의 하위요인별로 성별에 따라 지각하는 정도와 각 자아상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또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에 따라서 자아상태는 어떠한 모양을 보일까 하는 것들을 밝혀보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 I-1~4 :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요인인 성취-비성취,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둘째, 아동의 자아상태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 II-1~5 : 아동의 비판적 부모 자아, 양육적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 순응적 아동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하위요인과 자아상태와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설 III-1~4 : 아동의 각 자아상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인 성취-비성취,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이상의 문제와 가설을 구명하기 위해 본도에 있는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400명을 임의 표집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불성실 응답자 80부를 뺀 320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검사의 종류는 정원

식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진단검사’와 이성태의 ‘egogram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고, 자료처리는 SPSS/PC+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상관분석 등을 이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분석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심리적인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차이는 ‘성취-비성취’ 요인에서 남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 등의 요인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의 모습은 5개의 자아(CP, NP, A, FC, AC)에서 양육적 부모 자아만 남자보다 여자 쪽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4개의 자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상태와의 상관분석에서는 비판적 부모 자아와 양육적 부모 자아,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는 ‘성취-비성취’ 요인과 ‘자율-타율’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애-거부’의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순응적 아동 자아는 ‘개방-폐쇄’, ‘친애-거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에 따른 각각의 자아상태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① ‘성취-비성취’요인에서는 순응적 아동 자아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비판적 부모 자아, 양육적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자유스런 아동 자아 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② ‘자율-타율’ 요인에서는 자유스런 아동 자아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다른 자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 ③ ‘개방-폐쇄’ 요인에서는 성인 자아, 순응적 아동 자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④ ‘친애-거부’ 요인에서는 양육적 부모 자아,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 순응적 아동 자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밝혀 보고자 했던 연구 문제 및 가설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가정환경에 대해 성별에 따른 지각 차이는 ‘성취-비성취’ 요인에서만 남·녀 간 유의미한 지각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가 더 성취적으로 느끼고 있는 반면 여자가 덜 성취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직도 가정에서 남아에게 더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가정의 심리적환경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의 심리적환경의 각 요인별 득점 순으로 볼 때는 친애 쪽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율, 개방, 성취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의 모습은 ‘양육적 부모 자아상태’에서만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 쪽이 좀더 구원적, 보호적, 위안적, 배려적, 동정적인 여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에고그램(egogram)의 전체 모습으로 볼때는 역U형으로 따듯하고 명랑하며, 남에게 호감을 받는 타입이나 어딘지 모르게 미덥지 않고 세심한 주의가 부족해서 느슨함과 제멋대로인 타입의 모습임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에 따른 각각의 자아상태의 모습은 성취적인 환경에서 순응적 아동 자아를 제외한 비판적 부모 자아, 양육적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자유스러운 아동 자아가 발달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순응적 아동 자아는 폐쇄적, 거부적 환경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양육 또는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코자 한다.

첫째, 가정환경의 지각에 대해서는 질문지법으로도 충분하나 자아상태의 검사에서는 보다 정밀한 행동관찰을 통한 발생빈도를 근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연령별, 지역별, 학교급별 등의 비교 연구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18세 이전의 자아상태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정 프로그램도 동시에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고명규(1997). “사거래분석적 상담에 관한 이론적 접근” 제주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 권재원(1983). 「교육심리학」, 서울:형설출판사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학지사
- 김동규(1988). 「인간 이해의 새 지평」, 서울:교육과학사
- 김미숙(1983). “가정환경이 어린이의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기(1988). “인성요인과 가정환경 요인과의 상관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관(1982).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의 차이가 성격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중서(1980). 「교육연구의 방법」, 서울:배영사
- 김현수(1988). 「교류분석」, 서울:민지사
- (1992). 「교류분석의 이론과 실제」, 전주:금강출판사
- 김홍용(1994). 「성격개조를 위한 교류분석(TA) 프로그램」, 대구:영한문화사
- 설기문(1997). 「인간관계와 정신 건강」, 서울:학지사
- 송대현 외(1992). 「심리학개론」, 서울:성원사
- 송명자(1997). 「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 오명숙(1987). “가정환경과 아동 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재현(1990). 「자아실현의 열쇠」, 대구:우신출판사
- (1993). 「이코그램」, 대구:정암서원
- (1997). 「교류분석(TA) 프로그램」, 대구:정암서원
- 이경희(1982). “아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사회과학 제17집

- 이광응 외(1992). 「교육심리학」, 서울:양서원
- 이성태(1991). “의사거래분석적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완정(1996). 「행동연구 분석기법」, 서울:교육과학사
- 이형득(1997). 「상담이론」, 서울:교육과학사
- 외(1984). 「인간관계 개선과 치료」, 서울:중앙적성출판부
- 임규혁(1997). 「교육심리학」, 서울:학지사
- 임종렬(1997). 「대상관계 이론과 가족치료」, 서울:도서출판 신한
- (1986). 「인간관계론」, 서울:한국사회개발연구원
- 정성란(1993). “의사거래분석의 자아상태 활성화 프로그램이 생활자세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75). 「인간과 교육」, 서울:배영사
- (1989). 「교육환경론」, 서울:교육출판사
- 행동과학연구소(1973). 가정환경검사법 요강, 서울:서울행동과학연구소.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Allport, G. W. (1967). *Pattern and growth personality*, N. Y. : Holt, Rinehart and Winston.
- Baldwin, A. L. (1955).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ldhood*, N. Y. : Holt, Rinehart and Winston.
- (1956). *Patterns of parent behavior*, Psychological Monographs, Vol. 58.
- Berne, E. (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N. Y.: Grove Press.
- (1970). *Ego state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1.
- Bloom, B.S. (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 N. Y. : John Wiley & Sons.
- Bossard, T. H. (1960). *The sociology of child development*, N. Y. : Wiley & Sons.

- Dusay, J. (1977). *Egograms*, N. Y. : Harper and Row.
- Erikson, E., (1965).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 Y. : Harper and Brothers.
- Murray, H. A. (1938). *Exploration in personality*, N. Y. : Oxford Univ. Press.
- Sears, (1960). *Patterns of child rearing*, The child psychology, A. T. jersil(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Symonds, P.M.(1937).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the Ego State of Child

O Kwang-hoo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uh, Chul-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the ego state of child. With this purpose, I set up the following three problems.

First,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by the sex?

Second,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ego state of child by the sex?

Third, are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factor of home and the ego state of child?

To solve these problems, I set up the following hypothesis.

Hypothesis I-1~4: There would be no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state of ego about the achievement-non achievement, the autonomy-heteronomy, the open-close and the affection-denial which are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factor of child.

Hypothesis II-1~5: There would be no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critica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parent ego of child, the nurturing parent ego, the adult ego, the free ego and the adapted child ego by the sex.

Hypothesis III-1~4: Each ego state of child would show meaningful correlation in the achievement-non achievement, autonomy-heteronomy, open-close and affection-denial which are psychological environment factor of home.

The analysis and summary of data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erception difference about the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by the sex, the man were high in the factor of achievement-non achievement. Statistically it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factor of autonomy-heteronomy, open-close and affection-denial, there were little differences but no meaningful ones.

Second, among the five ego state(CP, NP, A, FC, AC) according to the sex, the women showed higher meaningfully than the men just in the nurturing parent ego.

Third, i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the ego state, statistics showed that the critical parent ego, nurturing parent ego and free child ego had meaningful direct proportional to correlation in the factor of achievement-non achievement and autonomy-heteronomy. And in the factor of affection-denial, statistics also showed meaningful inverse proportional to correlation. The adapted child ego showed meaningful inverse proportional to correlation in the factor of open-close and affection-denial.

Fourth, each ego state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change of home, the adapted child ego in the achievement-non achievement, the free child ego in the autonomy-heteronomy, the critical parent ego, the nurturing parent ego and the free ego in the open-close, the critical ego and adult ego in the affection-denial had no meaningful correlation and beyond that there were all correlation.

<부 록>

1. 가정환경 진단 검사
2. 자아상태 체크리스트



가정환경진검사지

이 검사는 가정환경진단검사라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검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을 것이므로 부담 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문항을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집에 대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면 “예”,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이면 “아니오”, 판단하기 어려우면 “잘 모르겠다”에 답하면 됩니다.

보 기



그렇다(○) / 어느 정도 그렇다(▲) / 아니다(x)

- | | | | |
|-------------------|---|---|---|
| 1. 우리집에는 남자가 더 많다 | ● | ○ | ○ |
| 2. 우리 집에는 개를 기른다. | ○ | ○ | ● |
| 3. 우리집은 아주 크다. | ○ | ● | ○ |

☞ 위와 같이 해당되는 곳의 ○안에 까맣게 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의 문항을 잘 읽고 응답해 봅시다.

질문 및 응답지

◆응답자 성별(남,여) 지역별(제주시,서귀포시)◆검사일: 199 년 월 일

번호	질문 내용	응답		
		◎	▲	×
1	우리 집 식구들은 일에 골몰하여 식사를 늦게하는 때가 종종 있다.	○	○	○
2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힘든 일이나 운동은 다친다고 못하게 하신다.	○	○	○
3	우리 집에서는 어른들이 하는 일에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솔직하게 비평할 수 있다.	○	○	○
4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어린애 다루듯 하신다.	○	○	○
5	우리 집 식구들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	○	○
6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소풍을 갔을 때 산 속에 혼자 가지 못하도록 하신다.	○	○	○
7	내가 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알고 있다.	○	○	○
8	우리 집 식구들은 아버지가 허락한 일만 해야 한다.	○	○	○
9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훌륭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때가 가끔 있다.	○	○	○
10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 몸에 조금만 열이 있어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	○	○
11	우리 집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나치게 중요시한다.	○	○	○
12	어머니와 아버지는 옷을 사주실 때 먼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하신다.	○	○	○
13	우리 집안 식구는 나에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	○	○
14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른들이 이야기 하는 자리에 아이들이 앉아 있지 못하게 하신다.	○	○	○
15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순순히 허락해 줄 때가 별로 없다.	○	○	○
16	우리 집에서는 남자도 여자처럼 부엌 일을 도울 때가 많다.	○	○	○
17	우리 집 식구들은 항상 바쁘게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	○	○
18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두워지면 위험하다고 집 밖 심부름을 안 시키신다.	○	○	○
19	우리 집안 식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못 들은 척 하는 일이 별로 없다.	○	○	○
20	우리 집 식구들은 옷을 살 때 자기가 전에 입었던 옷의 색깔과 같은 것을 좋아한다.	○	○	○
21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할 곳도 운동 삼아 걸어가라고 하시는 때가 많다.	○	○	○
22	우리 집에서는 남의 집에 놀러 다니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	○	○
23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윗사람에게 말대꾸를 한다고 꾸중하는 일이 자주 있다.	○	○	○

번 호	질 문 내 용	응 답		
		◎	▲	×
24	우리 집 식구는 자기 일을 각자가 처리한다.	○	○	○
25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힘에 좀 벅찬 일이라도 해보라고 하시는 때가 많다.	○	○	○
26	우리 집 식구들은 남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	○	○
27	나는 집안 식구들이 모두 밖에 나간 다음에 혼자 집을 지켜야 할 때가 가끔 있다.	○	○	○
28	우리 집 식구는 한번 놀러 갔던 곳은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	○	○
29	우리 집안 식구는 누가 더 잘했는지를 가지고 내기를 잘한다.	○	○	○
30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남에게 집안 일을 이야기하면 야단치신다.	○	○	○
31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라도 부모들이 반대하면 그것을 못하고 만다.	○	○	○
32	집안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아버지나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	○	○
33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학교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야단치신다.	○	○	○
34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에 빠질까 걱정이 되어 내가 바닷가에 놀러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	○	○
35	우리 집안 식구들은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털어놓지 않고 간직해 두는 버릇이 있다.	○	○	○
36	우리 집에서는 매일 거의 같은 반찬만을 해 먹는다.	○	○	○
37	우리 집 식구들은 밤늦게까지 전기불을 켜놓고 공부나 일을 하는 때가 많다.	○	○	○
38	우리 집 식구들은 손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	○	○
39	우리 집에서는 어른들이 하는 일에 아이들이 참견하면 야단치신다.	○	○	○
40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하면 바보같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야단치신다.	○	○	○
41	우리 집안 식구는 일을 시작하면 아무리 밤이 늦어도 끝까지 하는 버릇이 있다.	○	○	○
42	우리 집 식구들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든지 말해 버린다.	○	○	○
43	우리 집안 식구는 모두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 하는 때가 많다.	○	○	○
44	우리 집 식구는 어떤 일이든 간에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	○	○
45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일이든 시킨다.	○	○	○
46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혼자 어디를 가든지 별로 간섭하지 않는다.	○	○	○
47	나는 내 문제를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나 혼자 처리하는 때가 많다.	○	○	○
48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마음대로 물건을 사면 크게 야단한다.	○	○	○

자아상태 체크리스트

이 검사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과 같은 요령으로 다음의 질문을 하나씩 자세히 읽으면서 자신의 특성에 맞거나 가장 가까운 번호의 ○안에 까맣게 칠하면 됩니다.

◆응답자 성별(남,여),지역별(제주시,서귀포시),◆검사일 : 199 년 월 일

번호	질문내용	응답		
		◎	▲	×
1	다른 사람이 잘못 했을 때 좀처럼 용서하지 못합니까?	○	○	○
2	자신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	○	○
3	자신의 생각을 양보 없이 끝까지 주장하는 편입니까?	○	○	○
4	당신은 예의, 태도에 대해서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	○	○
5	한번 착수한 일은 끝까지 해내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 않은 편입니까?	○	○	○
6	부모가 시키면 그대로 따릅니까?	○	○	○
7	당신이 부모가 되면, 아이를 엄격히 기르겠다고 생각합니까?	○	○	○
8	당신은 무엇이든지 깔끔해 보이지 않으면 계속 그것에 신경이 쓰입니까?	○	○	○
9	‘잘못 됐다’,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표현을 잘 하는 편입니까?	○	○	○
10	당신은 시간이나 돈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 것은 지키고, 갚을 것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	○
11	타인이 길을 물어면 친절히 가르쳐 주는 편입니까?	○	○	○
12	친구나 어린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기를 좋아하는 편입니까?	○	○	○
13	남을 돌보는 일을 좋아합니까?	○	○	○
14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더 많이 보는 편입니까?	○	○	○
15	낙담한 사람이 있다면 위로하거나 격려해 주기를 좋아합니까?	○	○	○
16	친구들에게 무엇이든 사주기를 좋아합니까?	○	○	○
17	도움을 요청받으면 기꺼이 맡아서 처리해 주기를 좋아합니까?	○	○	○
18	누구든 실패해도 책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편입니까?	○	○	○
19	남동생, 여동생, 또는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을 이따하는 편입니까?	○	○	○
20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편입니까?	○	○	○

번호	질문내용	응답		
		◎	▲	×
21	당신은 여러가지 책을 잘 보는 편입니까?	○	○	○
22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 편입니까?	○	○	○
23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정합니까?	○	○	○
24	처음 접하는 일일 때 그 일을 잘 알아 본 후에 행동합니까?	○	○	○
25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결과를 충분히 생각해 봅니까?	○	○	○
26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묻거나 상의해 보는 편입니까?	○	○	○
27	몸에 이상이 생기면 조심을 하거나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합니까?	○	○	○
28	부모님과 감정이 상함 없이 대화를 잘 하는 편입니까?	○	○	○
29	해야 할 일들을 사리에 맞게 잘 처리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	○	○
30	미신이나 점을 치는 것 등은 믿지 않는 편입니까?	○	○	○
31	당신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	○	○
32	여럿이 어울려 신나게 이야기 하거나 노는 것을 좋아합니까?	○	○	○
33	‘아!’ ‘좋다’ ‘멋지다’ 등의 감탄사를 잘 사용하는 편입니까?	○	○	○
34	당신은 말하고 싶은 것을 어려워 하지 않고 말하는 편입니까?	○	○	○
35	기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편입니까?	○	○	○
36	갖고 싶은 것은 가져야만 마음이 편안합니까?	○	○	○
37	이성의 친구에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	○	○
38	남에게 농담을 하거나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편입니까?	○	○	○
39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까?	○	○	○
40	당신은 싫은 것을 싫다고 딱 잘라 말하는 편입니까?	○	○	○
41	당신은 남의 표정을 보고 행동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	○	○
42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지 않고 참는 일이 많습니까?	○	○	○
43	당신은 자신이 부족하다거나 못났다고 생각하는 편입니까?	○	○	○
44	무엇이든 부탁을 받으면 곧 하지 않고 뒤로 연기해서 끄는 편입니까?	○	○	○
45	무리를 해서라도 남에게 항상 잘 보이려고 애씁니까?	○	○	○
46	진실된 자신의 생각보다는 부모나 남의 말에 영향 받기 쉬운 편입니까?	○	○	○
47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일이 흔한 편입니까?	○	○	○
48	당신은 다른 사람이 부탁하거나 시키는 일을 잘 안하는 편입니까?	○	○	○
49	부모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편입니까?	○	○	○
50	속으로는 불만이지만 겉으로는 만족한 것처럼 행동합니까?	○	○	○

1 대단히 수고 하였습니다.